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에 의해 이주된 주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세종시 개발지역 이주민을 대상으로

Influencing Factor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Forced Immigrant by
Government-led Land Development Projects

이용규 Lee Yongkyu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제1저자) Professor,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Ang Univ.(Primary Author) (james@cau.ac.kr)
계용준 Kye Yongjoon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주) 알파돔자산관리 대표이사 CEO, Alphadom AMC, Ltd. The Doctor's Cours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Ang Univ. (johnkye@yahoo.co.kr)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1. 강제이주의 유형에 따른 삶의 변화
 - 2.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 연구방법
- III.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분석
 - 1. 연구모형
 - 2. 가설의 설정
 - 3. 분석
 - 4. 가설검증
- IV. 계층적 분석의 활용
 - 1. 구조모형과 조사설계
 - 2. 조사방법
 - 3. 분석결과
- V. 정책적 함의 및 결론

I. 서론

경제발전과 소득증가에 따라 주민 삶의 만족에 대한 욕구는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 연령, 성별을 떠나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 삶의 만족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 평가에도 주민 삶의 만족 향상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고려되어야 한다(Firedmann, 1987). 그러나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전제 아래 지역주민의 권리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사례가 아직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은 주택문제의 해결, 국토의 균형개발, 토지가격의 안정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반면에 자연훼손과 같은 환경문제는 물론 수많은 주민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오랫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¹⁾ 따라서 공공개발 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생존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주민은 다른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달라진 경제적 환경에 따른 문제다. 예기치 못한 많은 보상금을 받은 이주민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주민은 지급받은 보상금으로 과거 경제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주민과의 초점집단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 FGI)에 의하면, 대다수 이주민은 보

상금을 주택구입 등에 사용하고, 새로운 거주지에서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물리적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다. 이주민은 새로이 접하게 되는 자연적·물리적 시설도 과거와 동일하지 않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 규모나 특성상 전국이 거의 유사한 기후와 풍토여서 자연적 환경의 변화는 이주민에게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이주민의 생활방식, 연령 그리고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도시기반시설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새로이 거주하게 되는 주택은 구조, 시설 및 규모 측면에서 이주 전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차이점은 이주민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주거환경교육연구회, 2010: 59). 셋째, 사회적 유대감의 변화에 따른 문제다. 이주민은 정든 이웃과의 결별에 따른 상실감과 동시에 낯선 지역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의 대상지역은 대체로 대도시의 인접 농촌지역이다. 농촌지역의 커뮤니티는 생업의 특성상 이웃과 상호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인지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어(김현진, 2010: 12-15) 지역특유의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이 새로이 이주한 지역은 당연히 이주 전 지역과는 다른 규범²⁾과 문화를 가지고 있어, 이들이 여기에 동화되는 데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이처럼 이주민의 대다수는 여러 행태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1)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에 의해 발생한 이주민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공식 통계된 바는 없지만 상당히 많을 것이라 여겨짐. 200만 호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1989년도에 시행된 1차 신도시건설사업의 사례를 보면, 분당신도시 3,906세대 1만 2,209명, 일산신도시 5,341세대 1만 2,409명, 평촌신도시 2,934세대 약 1만 730명의 주민이 강제이주되었음(한국토지공사, 1994~1997).

2) FGI 결과, 지역에 따라 가지고 있는 규범이 매우 상이하며, 이러한 요인이 이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면, 이주 전 지역에서는 이웃이 음주 후 고성방가를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였으나 새로이 이주한 지역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공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함. 따라서 이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이주민은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전국에 걸쳐 대규모 공공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³⁾ 이에 따라 향후에 상당한 규모의 이주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학문적 연구도 원주민의 재정착에 관한 연구(배순석·천현숙·김승중, 2005; 김형배·김혜진, 2009; 임하경, 2009)나 보상 문제(김용창, 2010; 류하백, 2011; 길준규, 2010)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인 이주민의 삶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부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FGI,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및 계층분석(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이주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주에 따라 변화된 새로운 지역에서의 경제적 환경과 거주공간의 물리적 시설이 이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점에다 사회적 유대감을 새로이 추가하여 이들 요인이 이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FGI를 토대로 가설을 도출하고 SEM과 AHP를 병행적으로 사용하는 분석방법의 다각화(Triangulation)방안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방법의 결합은 단일 연구방법이 지니는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심준섭, 2006: 1). 따라서 이주민에 관한 연구가 일천한 상황에서 다각화 방안은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세종시 개발사업에 의해 이주된 주민이다. 주된 선정 이유는 이 사업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의 대표적 사례이고, 현재에도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자료의 획득과 현지

조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논의

1. 강제이주의 유형에 따른 삶의 변화

강제이주는 아주 오래전부터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적 약자를 대상으로 문명국가에서조차 최근까지 빈번히 자행되어 왔다. 이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상황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보상이 충분한 경우가 부족한 것보다, 지역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그들의 삶에 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상황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_ 강제이주의 유형

구분	지역개발의 목적		
	무	유	
보상	무	제1유형	제2유형
	유	제3유형	제4유형

제1유형은 전제나 독재국가에서 정치적이거나 인종말살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표적으로는 소련이 고려인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킨 사례를 들 수 있다. 제2유형에 속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특정한 사례를 거론하기 어려우며, 제3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댐 건설에 의해 수몰되는 경우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기관의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 등에 의한 이주는 상대적으로 적은 고통이

3)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중앙정부가 지정한 각종 지역·지구구는 53개이며, 여기에 맞춰 지정됐거나 추진 중인 지역·지구구는 1,556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주요 공공개발 사업(계획 포함)만 40개(지자체 사업 포함)에 달한다(강갑수, 2011).

수반되는 제4유형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이후 발생한 이주는 대부분 제4유형에 속한다.

세종시 개발에 따른 주민의 이주도 제4유형에 속한다. 개발 전 이 지역에는 약 4,180세대 1만 250명의 주민이 거주하였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6). 이주민이 받은 보상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대구성원이 받은 보상금 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가 277세대(7.4%)며, 개인별로는 1억 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은 주민이 45.2%에 달하고 있다. 또한 세입자는 576세대(15.6%)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상당수의 이주민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계량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삶의 만족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이다. 1980년대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Young and Longman(1983)은 현재 삶의 환경여건에 대한 만족이라고 정의하고 여기에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활동을 포함시켰다. Johnson(1982)은 삶의 만족이란 특정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개인이 표현한 경험과 주관적인 만족이라고 정의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위에서 언급된 정의를 포괄하여 WHO(1993)에서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라고 정의하였다.

삶의 만족감을 결정하는 요소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만족감은 소득수준, 소음의 정도, 주거환경, 교통사정 등과 같이 객관적인 상황으로부터 연유할 수 있고 친밀감, 사랑, 우정, 존경 등의 주관적 감정에 연유할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만족, 가치함의와 사회적 통합, 생활의 자유 등 물리적, 환경적, 심리적 측면까지도 포괄한다. 이렇게 보면 삶의 만족의 객관적 요소는 특정한 사회의 객관적 삶의 조건과 환경을 포괄하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대표하는 상황조건의 질(Quality of Condition)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경제적 생활수준, 평균수명, 직업선택의 다양성, 교육기회, 범죄율, 문화적 시설, 의료보장 등이 객관적 삶의 조건들이다. 주관적 요소는 개인의 삶이 자신의 명시적묵시적 내면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인지하는 정도로서 주관적인 안녕, 개인의 발전, 성장 등을 대변하는 인간의 질(Quality of Person)을 의미한다(김하수, 2005).

보다 구체적으로 OECD(2001)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① 지식, 기술, 건강 등 인적 자원, ② 집단 내 및 집단 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자본, ③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을 연결하는 정치적·제도적·법적 장치, ④ 경제·사회적 배정 등을 지적하고 있다. 고승덕과 김명(1996)은 성별, 연령, 교육, 직업, 수입, 결혼상태, 종교, 사회참여, 인종, 건강상태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프레이와 스텐저(Frey and Stutzer, 2000)는 삶의 만족 결정요인으로 ① 개인적·인구적 요인, ② 거시적·미시적 경제적 요인, ③ 법·제도적 요인 등을 나열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된 모든 요인이 삶의 만족에 동일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이들 요인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즉, 경제적 만족이 어느 정도 충족된 경우에는 삶의 목표가 경제적 만족 이외의 또 다른 욕구의 충족으로 이동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경제적 안정을 비롯한 경제·사회적 요인을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만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만이 유일한 또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사회적 유대감 혹은 이와 유사한 개념인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입증되었다(박희봉·이희창, 2005).

또한 집단의 특성에 따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도 상이하다. 예를 들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사회적 지원보다 가족과 친구들로 구성된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삶에 보다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Blixen, 1999).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체류의 합법성 여부, 종교유무, 체류기간, 주변인과의 접촉빈도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구은경, 2006). 그리고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개인·사회적 특성, 남한 입국과정, 외상(Trauma)증상 및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김미자, 2008). 앞에서는 의된 관점에서 이주민의 삶을 조명하면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일반적인 요인과는 상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FGI를 통해 경제적 요인, 물리적 시설,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을 이주민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설명요인으로 설정하였다.

1)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 레스터대학교는 건강상태, GDP, 평균수명, 교육 여건 등을 토대로 비누아투, 콜롬비아 등과 같은 경제수준이 높지 않은 국가가 가장 높은 행복지수를 보이는 것으로 발표하였다(www.happyplanetindex.org).

반면 영국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 : NEF)은 평균수명, 생존에 필요한 면적과 에너지 소

비량, 삶의 만족도 등을 기초로 덴마크, 스위스 등의 국가가 최상위 행복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이철우, 2008).

경제적 풍요성과 행복지수 간의 상반된 주장을 근거로 일부 학자는 삶의 만족에서 경제적 요인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나 지역이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거의 모든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삶의 만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연구들은 일관되게 경제적 요인, 즉 소득과 삶의 질 간에는 정(正)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부유한 사람 또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 경제적 안정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김하수, 2005). 오스왈드(Oswald, 1997)는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실업이 행복을 저하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Graham and Pettinato(2001)는 경제적 안정감과 실질적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실업수당의 수준과 물가상승률이 삶의 만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소득이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관련 변인들에 영향을 주어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박충선, 1990).

2) 물리적 시설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인간생활에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공간적 입지는 물질적 기본수요의 충족을 통해 사회 공간적 복지 또는 삶의 질의 제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최병두, 2000). Gillingham and Reece(1979)는 지역의 물리적 공간구조에 대한 만족수준이 바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기존 학술연구도 물리적 시설로서 주택에 대한 만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주거환경교육연구회, 2010: 59-60). 즉, 주택이란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지만 여기에서 영위되는 일상적인 생활은 거주자의 주관적·심리적 감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주거환경교육연구회, 2010: 92-98; 이연수, 1998).

3) 사회적 유대감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대감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사회적 요인만이 중요한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이들 요인에다 사회적 유대감 혹은 유사 개념인 사회적 자본을 변인으로 채용하여 중요성을 입증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박희봉·이희창, 2005). 보다 구체적으로는 건강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유대감이 약화되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Brown and Harris, 1978), 나이가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Hellawell, 2001)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아울러 사람에게 행복의 전제조건은 가족 구성원, 친구, 애인 등과의 좋은 관계이며(Putnam, 2000), 특히 평균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사회적 유대감이 교육 및 소득보다 삶의 만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lanchflower and Oswald, 2000).

사회적 유대감은 거주기간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창수·문용갑, 1990: 174-175). 그러므로 지역에서 거주기간이 길지 않은 이주민은 이웃과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이러한 상황이 이주민의 삶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기존 연구 결과는 지지해 주고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주민 대상으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분야를 주제로 한 연구는 제한적이어서,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하여 연구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연구방법 즉, SEM과 AHP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의 다각화(Triangulation)는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FGI는 2009년 7월 3일, 7월 14일, 2011년 1월 5일에 충남 연기군 주민생계조합 사무실에서 1~3시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주민생계조합 K조합장, W이사, H차장, I조합원은 항상 인터뷰에 참여하였으며, 회의마다 주민대표자 3~4명이 참여하여 총 7~8인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FGI 진행시 자연스럽고 편안한 입장에서 참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본 연구에서 SEM과 AHP는 어느 것이 지배적이기(Dominant)보다는 상호보완적(Supplementary)으로 활용되었다. 즉, SEM은 인과관계경로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AHP는 변수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설명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것은 하나의 연구방법이 지닌 약점을 또 다른 연구방법의 강점으로 보완함으로써 단일 연구방법(Single Method)에서 기인하는 오차와 결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심준섭, 2006: 14).

III.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분석

1. 연구모형

선행연구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주민에 대한 직접적 연구가 미흡하여 영향요인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3차례의 FGI를 통해 삶의 만족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GI에서 나타난 이주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보상금, 직업, 주택구입, 사회적 유대감, 수입감소, 지출증가 등 매우 광범위하였다. 아울러 연령, 성 그리고 결혼여부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소 상이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은 수입·지출과 같은 경제적 요인, 주택의 구조와 시설과 같은 물리적 시설, 그리고 이웃과의 친밀성·신뢰감 등과 같은 사회적 유대감 등으로 집단화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FGI에서 나타난 주요 변수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경제적 요인과 물리적 시설을 독립변수, 사회적 유대감을 매개변수, 삶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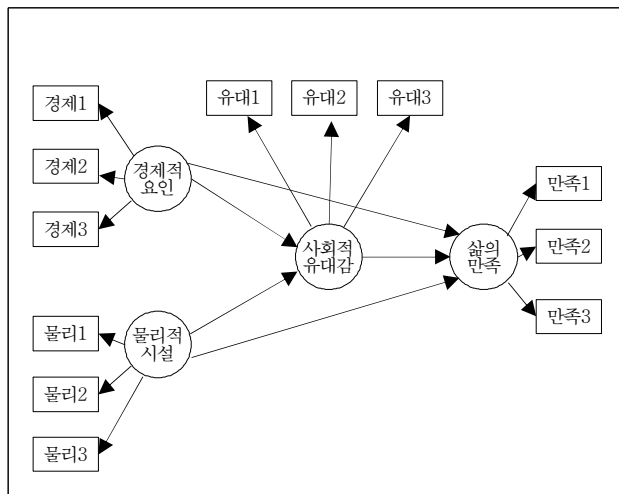
만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가설 검증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 가설의 설정

대다수의 연구들은 일관되게 경제적 요인, 즉 소득과 삶의 질 간에는 정(正)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하수, 2005). Graham and Pettinato (2001)는 경제적 안정감과 실질적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실업수당의 수준과 물가상승률이 삶의 만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FGI 결과를 보면 이주민은 변화된 경제적 환경을 체감하고 있었다.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삶의 패턴 변화로 인하여 경제적 격차를 느끼고 있었다. 노년층은 구직을 포기한 채 보상금에 의존하였고, 청장년층도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서 전체적으로 가계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였다. 또한 도시지역에서 지출 규모의 급격한 증가는 이주민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에 경제적 요인의 영향에 관한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경제적 요인이 향상될수록, 삶의 만족이 제고될 것이다.

그림 1 _ 가설 검증모형



이주민은 거주 주택에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과거 이들의 대부분이 살던 농가주택 구조와는 전혀 다른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이는 이주민들이 주택을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고, 이것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Gillingham and Reece(1979)는 지역의 물리적 공간구조에 대한 만족수준이 바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간

주하였다. 주거환경교육연구회(2010)와 이연수(1998)의 연구에서 주택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지만 여기에서 영위되는 일상적인 생활은 거주자의 주관적·심리적 감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주거환경교육연구회, 2010: 92-98; 이연수, 1998). 이에 물리적 시설의 영향에 관한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거주 공간의 물리적 시설에 만족할수록, 삶의 만족이 향상될 것이다.

FGI를 분석하면 사회적 유대감(Social Connectedness) 측면에서도 이주민은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이주민은 새로운 지역에서 이웃과 선린관계를 형성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주기간이 짧아 과거와 같은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웃관계, 사회적 유대감 및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입증되었다(Rice, Leever, Christopher and Porter, 2006; 박희봉·이희창, 2005). 사람에게 행복의 전제조건은 가족 구성원, 친구, 애인 등과의 좋은 관계이며(Putnam, 2000), 특히 평균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교육 및 소득보다 삶의 만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alanchflower and Oswald, 2000). 사회적 유대감은 거주기간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정창수·문용갑, 1990: 174-175). 그러므로 지역에서 거주기간이 길지 않은 이주민은 이웃과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이러한 상황이 이주민의 삶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사회적 유대감이 향상될수록, 삶의 만족이 제고될 것이다.

사회적 유대감은 설명변수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과 물리적 시설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주민은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도 적극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철화(2009)는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주택소유 여부가 이웃과의 유대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정창수와 문용갑(1990)의 연구에서도 소득수준, 직업 등 경제적 요인이 사회적 유대감에 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적 요인은 사회적 유대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FGI를 통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주된 주민은 주택의 상태, 구조 및 크기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물리적 시설에 불만족하는 주민은 새로이 정착한 지역을 벗어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이웃과의 접촉도 제한적으로 하였으며,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도 적극적이지 않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주거환경교육연구회(2010)의 연구에서 주택이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순차적으로 이웃과의 접촉도 감소하였다. 이웃과의 접촉 감소는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 당연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박지혜·조성희, 2006: 474-475).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택 등의 물리적 시설은 사회적 유대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대감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과 물리적 시설의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경제적 요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5: 거주공간의 물리적 시설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3. 분석

1) 설문변수의 조직적 정의 및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모형의 요인인 주거공간의 경제적 요인, 물리적 시설, 이주민의 사회적 유대감과 삶의 만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1)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란 이주민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며 재산총액, 보상금 액수, 수입총액, 지출총액과 같은 객관적인 수치보다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민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주민의 경제적 요인은 급격히 변화된 경제적 내용을 토대로 절대적 관점뿐만 아니라 상대적 관점에서 보상금, 직업의 변화, 수입구조의 변화 그리고 생활의 패턴변화로 인한 지출의 변화 등에 대한 주관적 감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변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환경이란 이주민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측정을 위한 질문항목은 전체 3개로, '절대적 관점에서 현재 상황', '비교적 관점에서 경제적 상황의 개선 여부', 그리고 '비교적 관점에서 수입의 증가 여부'에 대한 본인의 견해였다.

(2) 물리적 시설

주거에 있어서 물리적 시설은 좁은 의미로는 주택유

형, 주택상태, 주택설비, 조명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나(이성용, 2006: 10), 넓게는 도시기반시설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거공간의 물리적 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FGI를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은 이주민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주거공간에서의 물리적 시설은 주택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공간의 물리적 시설이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측정을 위한 질문항목은 전체 3개로, '주택의 규모', '주택의 내부시설'과 '주택의 냉난방 시설'에 대한 만족도다.

(3)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유대감이란 "소속에 대한 내적 감각을 반영하며 전체적인 사회적 세계와 대인 관계적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다(Lee, Draper and Lee, 2001). 대체적으로 새로운 장소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형성되면 지역에 관한 경제·사회적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고, 이웃과 상부상조하게 되며 나아가 긴밀한 사교적 관계도 형성된다. 이러한 사회적 유대감은 통상적으로 지역 친목조직 참여, 이웃주민 신뢰수준, 부담 없이 방문 가능한 이웃의 존재여부, 살림도구나 연장의 공동이용 여부, 상부상조의 수준 등으로 측정되고 있다(이철화,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대감이란 주변 사람과의 밀접성, 친밀성의 수준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항목은 전체 3개로, '부담 없이 방문 가능한 이웃 여부', '살림도구나 연장의 공동이용 여부' 및 '상부상조의 수준'이었다.

(4) 삶의 만족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이란 '이주 후 현재 놓여 있는 환경 여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이다. 이러한 개념은 WHO는 건강상태, 생활방식, 생활만족도, 정신상태, 안락성(Well-Being) 등을 모두 포함하는 다원적(Multi-dimensional) 측정도구인 삶의 질 척도(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 WHOQOL)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항목으로 WHOQOL에서 사용된 질문항목 중에서 '인생을

즐기고 있는가 여부', '미래에 대한 전망'과 '본인 능력에 대한 만족'을 선정하였다.

2) 자료의 수집 및 응답자의 특성

모 집단은 2010년 12월 현재 세종시 개발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 6,100여 명이다. 그리고 문헌조사와 FGI를 통하여 경제적 요인, 물리적 시설, 사회적 유대감을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 차례의 예비연구(Pilot Study)를 실시하였고, 설문지 수정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대상자는 이주민 중에서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을 제고시키고자 이주 전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웃이었던 주민을 조사원으로 채용하여 2010년 12월~2011년 2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02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거나 명백하게 허위로 답변하였다고 판단되는 일부 설문지를 제외한 398부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응답자 중 60대 이상이 41% 이상이었고, 학력은 초졸 이하 28.5%, 그리고 고졸 이하가 총 88.8%에 달하며, 기혼이 91.9%에 달하고 있다. 자녀 수는 없음이 7.8%이며, 1명 9.1%, 2명 31.1%, 3명 27.7% 그리고 4명 이상이 27.7%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9.8%만이 현재에도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아파트가 74.2%며, 단독 주택이 18.5%이며, 소유형태는 자가 58.2%, 전세 31.8% 그리고 월세 5.1%였다. 연간 총수입이 3천만 원 미만이 75.7%를 차지하고 있으

표 2 _ 측정변수에 대한 요약

변수	측정변수	비고
경제적 요인	e1: 절대적 관점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 정도	이주 후 수입과 지출 구조가 급격히 변화된 점에 초점을 두고 질문항목을 개발
	e2: 비교적 관점에서 현재 경제 상황 개선 정도	
	e3: 비교적 관점에서 현재 수입 증가 정도	
물리적 시설	h1: 주택규모에 대한 만족 정도	이주택(1993) ¹⁾ 이 주택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설문 중 본 연구에 부합하는 설문을 발췌 작성
	h2: 주택의 내부시설(부엌, 화장실 등)에 대한 만족 정도	
	h3: 주택의 냉·난방 시설에 대한 만족 정도	
사회적 유대감	p1: 평상시 이웃 방문 수준	이철화(2009) ²⁾ 가 사회적 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설문 중 본 연구에 부합하는 설문을 발췌 작성
	p2: 간단한 살림도구나 연장 등을 빌려 쓰는 수준	
	p3: 이웃을 도와주거나 도움(김장, 아기 돌보기)을 받는 상부상조의 수준	
삶의 만족	q1: 인생 즐길 수준	민성길 외(2002) ³⁾ 가 WHO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에서 적절한 일부 설문을 발췌 작성
	q2: 미래에 대한 전망	
	q3: 일상생활의 활동을 수행하는 나의 능력에 대한 만족 수준	

출처: 1) 이주택. 1993. "주거환경 만족도 요인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이철화. 2009. "동네사회자본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도시 재개발유형 및 주거관련요인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민성길·김광일·박일호. 2002.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지침서". 서울 : 하나의학사.

표 3_ 응답자의 인구 구성학적 특성

변수	속성	빈도	비율
총소득 (무응답: 11)	1천만 원 미만	165	42.6
	1천만 원~ 3천만 원 미만	128	33.1
	3천만 원~ 5천만 원 미만	61	15.8
	5천만 원~ 8천만 원 미만	22	5.7
	8천만 원 이상	11	3.8
	합계	387	100.0
사회적 위치 (무응답: 2)	하층	48	12.1
	중하층	123	31.1
	중층	187	47.2
	중상층	34	8.6
	상층	4	1.0
	합계	396	100.0
거주지 평형 (무응답: 73)	20평 미만	50	15.4
	20~30평 미만	112	34.5
	30~40평 미만	118	36.3
	40~50평 미만	36	11.1
	50평 이상	9	3.7
	합계	325	100.0
직업 (무응답: 1)	농림·어업·축산업	39	9.8
	전업주부	91	22.9
	무직/은퇴	58	14.6
	단순노무직	33	8.3
	기타	29	7.4
	합계	397	100.0
연령 (무응답: 2)	20대	4	1.0
	30대	67	16.9
	40대	72	18.2
	50대	90	22.7
	60대	65	16.4
	70대	77	19.4
	80대	20	5.1
	90대	1	0.3
	합계	396	100.0
	평균	55.8	
	표준편차	15.1	

며, 사회적 위치는 응답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47.2%가 본인이 스스로 중층이라고 답하였다.

3) 설문 해석

이주민은 새로운 거주지를 선정할 때 가족(46.7%)이나 친인척(16.8%)의 도움으로 주거지역을 결정하였다. 반면에 통상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부동산 중개인 의존율은 낮았다. 이주지 선정이유는 ‘전에 살던 곳과 가까워서’가 가장 높은 빈도(48.7%)로 나타났다. 아울러 ‘친인척이나 이웃과 함께 살고 싶어’ 새로운 이주지를 선정하였다는 대답도 매우 높았다(29.4%). 반면에 일반적 이주 원인인 ‘경제적 이유’는 그다지 높지 않게(16.8%) 나타났다.

응답자의 이주에 따른 보상액은 1억 원 미만이 37.6%이었으며, 3억 원 미만 누적합계는 이주민의 68%에 달하였다. 아울러 보상액에 대해서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71.2%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이주민 사이에 고향에 대한 향수와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설문항목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5점 척도에서 경제적 요인이 2.33(SD=.9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순차적으로 삶의 만족 2.88(SD=.84), 사회적 유대감 2.96(SD=.89) 그리고 물리적 시설 3.22(SD=.89)로 나타났다. 즉, 새로운 물리적 시설에 대한 만족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적 요인에 대하여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과거에 살던 주택과 비교하여 새로이 이사한 주택은 냉난방시설이나 주택내부가 상대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요인이 가장 낮게 나오고 그중에서도 수입에 대하여 가장 큰 불만이 있는 이유는 대다수의 이주민이 60세 이상의 고령자고,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해 새로운 사업이나 직업을 통하여 수입을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에는 이들이 보상금으로 생활을 해결하고 있지만, 새로운

표 4 _ 설문응답 빈도분석

변수	속성	빈도	비율
거주지 선정에 도움을 준 사람	가족	186	46.7
	친인척	67	16.8
	이주관련단체(조합)	22	5.5
	이웃주민	48	12.1
	부동산중개인	30	7.5
	기타	45	11.4
	합계	398	100.0
거주지 선정이유 (무응답 : 4)	친인척 가까운 곳 거주	77	19.5
	경제적 이유	66	16.8
	전에 살던 곳과 가까워서	192	48.7
	가까운 이웃이 살아서	39	9.9
	기타	20	5.1
	합계	394	100.0
보상액 (무응답 : 7)	5천만 원 미만	77	19.7
	5천만 원~1억 원 미만	70	17.9
	1억~3억 원 미만	119	30.4
	3억~5억 원 미만	53	13.6
	5억~10억 원 미만	41	10.5
	10억 원 이상	31	7.9
	합계	391	100.0
보상액 만족도 (무응답 : 6)	매우 불만족	110	28.1
	불만족	169	43.1
	보통	98	25.0
	만족	15	3.8
	합계	392	100.0
	평균	2.05	
	표준편차	0.83	

수입원을 단기간 내에 찾지 못하면 향후 커다란 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도시빈민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4) 신뢰도와 타당도

측정도구의 문항 간 내적 일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리적 모형을 이용하여 일관

표 5 _ 설문문항별 기술통계 분석결과

잠재 변수	관찰변수: 설문문항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요인	경제 1 •가계의 현재 경제 상황 정도	2.44	2.33
	경제 2 •이주 전과 비교했을 때 경제상황의 개선 정도	2.35	
	경제 3 •이주 전과 비교했을 때 수입의 증가 정도	2.18	
물리적 시설	물리 1 •주택의 규모에 대한 만족	3.31	3.33
	물리 2 •주택의 내부시설 (부엌, 화장실 등)에 대한 만족 정도	3.34	
	물리 3 •주택의 냉·난방 시설에 대한 만족 정도	3.34	
사회적 유대감	유대 1 •평상시 이웃 방문 수준	3.02	2.96
	유대 2 •간단한 살림도구나 연장 등을 빌려 쓰는 정도	2.86	
	유대 3 •이웃을 도와주거나 도움(김장, 아기돌보기)을 받는 수준	3.02	
삶의 만족	만족 1 •인생 즐길 수	2.96	2.88
	만족 2 •미래에 대한 전망	2.74	
	만족 3 •일상생활의 활동을 수행하는 나의 능력에 대한 만족 수준	2.93	

성 정도를 검증하는 Cronbach α 와 종합신뢰도를 함께 검토했다. 첫째, 요인별 Cronbach α 는 모두 0.87~0.89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신뢰성이 매우 높다. 둘째, 종합신뢰도(Raykov의 신뢰도 p : Raykov, 1998)는 Cronbach α 가 신뢰도를 과소 또는 과다 측정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인데 모두 기준인 0.6(Bagozzi and Yi, 1998; Hair et al. 1992; Fomell and Larcker, 1981)을

상회해서 종합신뢰도는 우수하다.

타당도는 구성개념타당도를 검증했으며, 집중타

표 6_ 신뢰도 분석결과

잠재 변수	관찰 변수	Cronbach α	R^2	표준화 적재치 (집중 타당도)	종합 신뢰도
경제적 요인	경제1	0.87	0.66	0.81	0.88
	경제2		0.79	0.89	
	경제3		0.68	0.83	
물리적 시설	물리1	0.88	0.76	0.87	0.88
	물리2		0.78	0.88	
	물리3		0.61	0.78	
사회적 유대감	관계1	0.89	0.70	0.84	0.89
	관계2		0.83	0.91	
	관계3		0.68	0.82	
삶의 만족	만족1	0.87	0.65	0.81	0.87
	만족2		0.81	0.90	
	만족3		0.60	0.77	

표 7_ 잠재변수 상관관계 행렬을 통한 판별타당도

잠재 변수	경제적 요인	물리적 시설	사회적 유대감	삶의 만족
경제적 요인	0.88	0.39**		
물리적 시설		0.88		
사회적 유대감	0.20*	0.16*	0.89	
삶의 만족	0.40**	0.23*	0.19*	0.78

주: * $p < 0.10$, ** $p < 0.05$.

표 8_ 가설검증 결과

경로	예측 방향	B	β	t값	p값	결과
가설_1 경제적 요인 → 삶의 만족	+	0.20	0.15	3.24	0.00	지지
가설_2 물리적 시설 → 삶의 만족	+	0.07	0.11	2.06	0.04	지지
가설_3 사회적 유대감 → 삶의 만족	+	0.17	0.20	4.05	0.00	지지
가설_4 경제적 요인 → 사회적 유대감	+	0.35	0.53	9.12	0.00	지지
가설_5 물리적 시설 → 사회적 유대감	+	0.09	0.11	1.77	0.08	기각

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구분했다. 먼저 집중타당도 검증 을 위해서 요인 적재치를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표준화 적재치가 모두 0.65 이상으로 높으며(Byrne, 1998; Anderson and Gerbing, 1988), 모두 $p=0.05$ 이상의 기준에서 유의미하다.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추출평균분산(AVE)은 각 잠재변수의 추출평균분산(음영된 부분)이 (0.78~0.89) 상관관계 제곱근음영 없는 부분)의 수를 제곱한 값: 0.03~0.16)과 명확히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요인 분석결과를 가지고 요인 별 단일차원 여부를 파악하였고, 각 요인 사이의 관련성 정도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잠재변수들의 상관계수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경제적 요인과 물리적 시설, 경제적 요인과 삶의 만족, 물리적 시설 과 삶의 만족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상관계수의 값들이 모두 양의 상관계수 값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의 연구가설과 방향성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4. 가설검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하여 측정된 변수(외생변수)들과 공통요인(내생변수) 간의 상호 인과적 관계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으며, 인과모형에서 매개변수의 표준화된 계수들의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주민의 경제적 요인 및 물리적 시설에 대한 삶의 만족이 사회적 유대감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8>과 같다.

모형의 적합성 여부의 판정은 절대부합지수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표 9_ 모형 적합도 지수결과

적합도 지수	$\chi^2(df)$	RMSEA	NNFI	CFI	GFI	AGFI
수치	64.22 (48)	0.030	0.99	1.00	0.97	0.96

.85~.90이 바람직함),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사용하기로 한다. 모형 적합도 지수결과는 <표 9>에 나타나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검증모형의 적합도 지수(measure of overall fit)는 64.22, $df=48$, RMSEA=0.030, NNFI=0.99, CFI=1.00, GFI=0.97, AGFI=0.96으로 나타나 기준별 수용가능 범위 내에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요인들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 검증결과를 종합적으로 표현한 경로계수의 도식은 <그림 2>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그림을 토대로 가설을 검증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경제적 요인이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 ($\beta=0.53$, $t=9.1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적 요인이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기존 연구의 결과(Oswald. 1997; Graham and Pettinato. 2001)와도 일치하며 경제적 요인이 삶의 만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통상적인 인식과도 부합한다. 둘째,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물리적 시설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beta=0.11$, $t=2.06$)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택의 구조와 크기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인식 및 기존 연구(이성용. 2006; 주거환경교육연구회. 2010)의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 유대감이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beta=0.20$, $t=4.0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이웃과의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통설과 일치하며 기존 연구(Brown and Harris. 1978; Helliwell. 2001; Putnam. 2000)의 결과와 부합한다.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변수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4와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을 통한 직·간접효과와 총 효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가설 4를 검증한 결과, 경제적 요인이 삶의 만족

그림 2_ 경로계수의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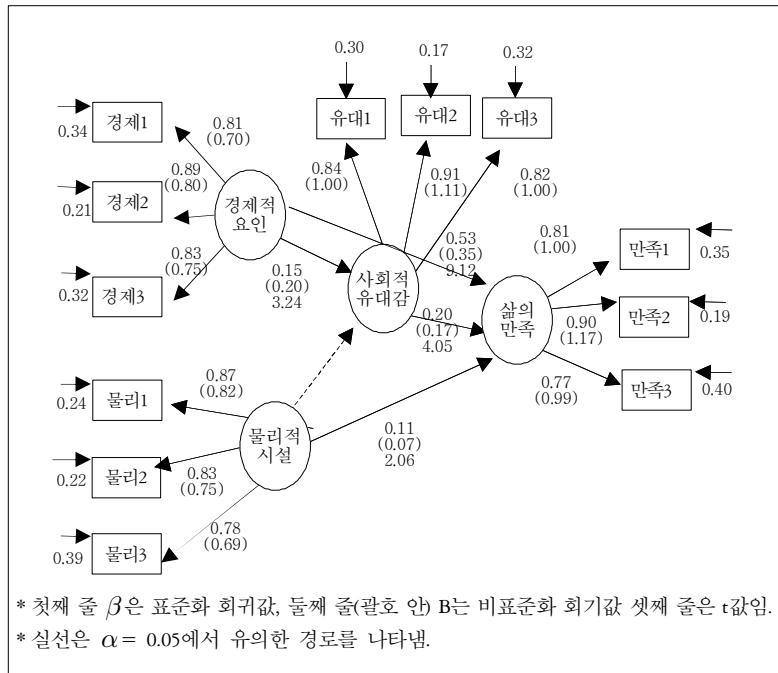


표 10_ 직접효과/간접효과/총 효과

잠재 변수	사회적 유대감			삶의 만족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경제적 요인	0.15	-	0.15	0.53	0.03 (0.15*0.20)	0.56
물리적 시설	-	-	-	0.11	-	0.11
사회적 유대감	-	-	-	0.20	-	0.20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5를 검증한 결과, 물리적 시설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물리적 시설이 사회적 유대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분석된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요인, 물리적 시설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 모두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만이 사회적 유대감을 통하여 삶의 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총 효과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제적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삶의 만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IV. 계층적 분석의 활용

1. 구조모형과 조사설계

본 장에서는 이주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된 각 요인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주민 삶의 만족과 영향요인을 계층적으로 연

결하였다. 계층화 분석과정은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상황을 하위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구성요소들을 계층적 순서에 따라 배열한 후, 각 구성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수치화된 가치를 할당하였다. 계층화 분석과정은 각 요소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지배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요소 간의 이원비교방법(Pairwise

Comparison Method)을 이용하였다(김영대, 1996: 148-149).

1) 제1차적 결정요인의 범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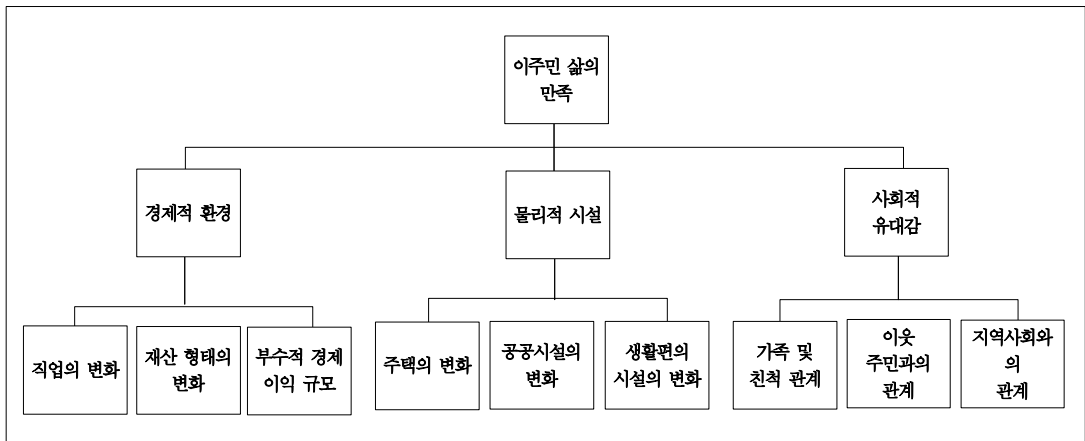
이주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제적 환경, 물리적 시설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으로 범주화하였다.

2) 세부요인의 구조화

세부요인의 구조화는 제1차적 결정요인을 구성하는 세부요인을 탐색하였다. 경제적 환경은 직업의 변화, 재산형태의 변화와 부수적 경제 이익 규모로 구성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유대감은 가족 및 친척 관계, 이웃주민과의 관계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로, 물리적 시설은 주택의 변화, 공공시설의 변화 및 생활편의시설의 변화로 구성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전술한 구조화작업을 바탕으로 이주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제1차적 결정요인 및 세부요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구조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 ① 직업의 변화: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원의 변화

그림 3_ 세부 요인별 중요도 분석 틀



- ② 재산 형태의 변화: 소유하고 있는 재산 형태의 변화
- ③ 부수적 경제이익 규모: 품삯 등 각종 부수입 창출 방법 및 규모의 변화, 텃밭 가꾸기를 통한 생활비 지출 절감 방법 및 규모 변화
- ④ 주택의 변화: 주택의 시설과 규모, 위치의 변화
- ⑤ 공공시설의 변화: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도서관, 공원, 교통시설, 교육시설 등의 변화
- ⑥ 생활 편의시설의 변화: 백화점, 재래시장, 영화관, 할인마트, 종합병원, 학원 등 상업 및 편의 시설의 변화
- ⑦ 가족 및 친척관계: 가족 및 친인척 간의 관계 변화
- ⑧ 이웃주민과의 관계: 거주지역의 이웃주민과의 정서적 유대 관계 변화
- ⑨ 지역사회와의 관계: 봉사활동, 사회단체 및 정치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에서의 관계 변화

2.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는 이주정책과 심리학 분

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행정학자, 이주민 대표자 등 22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최대고유치의 분포에 대한 차원별 특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을 15%로 설정하였다(조근태·조용곤·강현수, 2003: 84).

3. 분석결과

중요도 분석결과 <표 11>에 의하면, 이주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경제적 환경이 가장 크고(0.40), 다음으로 인간관계(0.37) 그리고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0.24)로 나타났다. 앞에서 논의한 SEM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삶의 만족에 미치는 총 효과는 경제적 요인(0.56), 사회적 유대감(0.29) 그리고 물리적 시설(0.11) 순으로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SEM과 AHP에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중요성 서열은 동일하였다. 그러나 SEM에 의한 총 효과분석에서는 최상위와 최하위 잠재독립변인 간에 약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반면, AHP 방법

표 11_ 이주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항목	항목별 가중치	세부 항목	세부 항목별 가중치	세부 항목별 비중
경제적 환경	0.40	직업의 변화	0.33	0.13
		재산형태의 변화	0.44	0.18
		부수적 경제 이익규모의 변화	0.23	0.09
물리적 시설	0.24	주택의 변화	0.42	0.10
		공공시설의 변화	0.16	0.04
		생활편의시설의 변화	0.43	0.10
사회적 유대감	0.37	가족 및 친척관계	0.34	0.13
		이웃주민과의 관계	0.42	0.16
		지역사회와의 관계	0.24	0.09

론에서는 항목별 비중의 격차가 최상위와 최하위 간에 2배수 내에 존재하고 있다. 즉, 분석방법론과 설문대상에 따라 주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요인별 중요성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AHP 방법론을 이용한 세부 항목별 비중은 재산형태의 변화(0.18)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족 및 친척관계변화(0.13), 직업변화(0.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공시설이용의 변화(0.04)는 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변화(0.04)를 제외한 나머지 세부항목의 비중은 0.09~0.18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 세부항목 간 비중의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HP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는 변화된 다양한 요인들이 대동소이하게 이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SEM분석을 위한 설문에 응답한 이주민은 경제적 요인의 비중을 보다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당사자와 제3자 간 입장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이거나, 공공개발사업에 의한 이주 체험의 유무

에 따른 이주민의 감정적 혹은 전문가의 이성적 설문응답 행태에 기인한다.

V. 정책적 함의 및 결론

본 논문은 이주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문헌조사와 FGI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였고, 세종시 개발지역 내 거주하던 주민을 모집단으로 하고 표본으로부터 추출된 자료를 토대로 SEM방법론을 활용하여 인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SEM과 AHP 두 방법 모두에서 이주민 삶의 만족에 경제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사회적 유대감 그리고 물리적 시설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방법과 응답대상자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SEM의 측정변수와 AHP의 세부요인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하위요소 간의 차이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요인이 이주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세종시 개발에 따른 이주민에게는 토지, 건물, 영업권에 대한 대물적 보상뿐만 아니라 생활보상도 하고 있다. 또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이주민의 우선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의 방식과 범위는 종전의 경제적 상태를 회복시키기에 충분치 못하다. 즉, 향후에는 보상의 개념을 시장가치에 따른 단순한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종전 삶의 질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현재의 보상방식과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도 이주민의 성별, 연령별 특

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유대감도 이주민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현 거주지를 선정한 중요한 이유가 고향과의 인접성, 친인척과 가까이 살고 싶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삶의 만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주민들과의 생활공동체를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주민이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순환형 개발, 이주단지 입주율을 위한 행정적 정책지원, 종전 지역의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모임 주선, 기념관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물리적 시설은 사회적 유대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지만 삶의 만족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주민이 주택의 형태, 내부구조, 시설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주민을 상대로 이주지원(Moving Assistance)과 같은 행정서비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앞으로도 여러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사회 발전에 따라 개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가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주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행 사업 진행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대규모 공공 개발사업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주민 삶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일천한 현실적 상황을 인식하여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표본의 특성상 외적 타당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연구결과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일반화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에는 이주민 삶의 변화를 시간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공

공개발 사업에 의해 원치 않은 이주를 하여야 하는 이주민 삶의 만족에 대한 관심과 후속 연구의 시발점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장갑수. 2011. “곳곳이 ○○지구...대한민국은 지금 신음 중”. 이주경제. 2월 6일자.

고승덕·김명. 1996.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제13권 제2호. pp120-122.

구은경. 2006. “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남양주시 성생마을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길준규. 2010. “우리나라의 공영수용과 보상의 현안”. 토지공법연구 제49집. 서울 : 한국토지공법학회. pp59-88.

김미자. 2008. “북한이탈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영대. 1996. “계층화 분석과정(AHP)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중요도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6권 제1호. pp147-165.

김용창. 2010. “공익사업에서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제도의 쟁점 및 개선에 대한 연구”. 공간과 사회 제33호. pp5-47.

김허수. 2005. “지역복지 생활여건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현진. 2010. “커뮤니티의 상호활동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 중소도시 군산, 마산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형배·김혜천. 2009.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의 원주민 현지 재정착 요인의 특성에 관한 기초 연구”.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 제41권 제2호. pp55-67.

류하백. 2011. “토지수용법제에 대한 평가”. 토지공법연구 제53집. pp25-86.

민성길·김광일·박일호. 2002.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지침서. 서울 : 하나의학사.

박지혜·조성희. 2006. “아파트 거주자의 이웃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472-475.

박충선. 1990.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여성연구 제28권. pp115-153.

박희봉·이희창. 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 한국행정논집 제17권 제13호. 경북 : 한국정부학회.

- pp709-728.
- 배순석·천현숙·김승중. 200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 연구. 경기 : 국토연구원.
- 심준섭. 2006. “행정학 연구의 대안적 방법으로서의 방법론적
다가회(triangulation):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의
결합”. 한국행정학회 2006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집(상). p3.
- 이성용. 2006. “마찬가지로 광역도시권 주거환경 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연수. 1998. 실내환경심리행태론.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 이주택. 1993. “주거환경 만족도 요인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철우. 2008. 관계의 심리학. 서울 : 경향미디어.
- 이철화. 2009. “동네사회자본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재개발
발유형 및 주거관련요인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하경. 2009. “도시재생에 의한 주거재정착 결정요인 및 비용
분석: 주택개발사업 사례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 논문.
- 정창수·문용갑. 1990. “대도시 주민들의 이웃관계와 그 관련 변인
들에 관한 연구: 서울의 8개 주거지역 가정주부를 대상으
로”. 한국사회학 제23권 제1호. 서울 : 한국사회학회.
pp171-189.
- 조근태·조용곤·강현수. 2003.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서울 : 동원출
판사.
- 주거환경교육연구회. 2010. 주거환경학 총론. 서울 : 교문사.
- 최병두. 2000. “삶의 질로서 공간의 유형화와 공동체”. 대한지리학
회지 제35권 제2호. 서울 : 대한지리학회. pp321-340.
- 한국토지공사. 1994. 토지개발사업총람. 성남 : 한국토지공사.
- _____. 1996. 토지개발사업총람. 성남 : 한국토지공사.
- _____. 1997. 토지개발사업총람. 성남 : 한국토지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백서. 연기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Anderson, J. C. and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vol.103. USA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411-423.
- Bagozzi, R. P. and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16, no.1. pp74-97.
- Balanchflower, David. G. and Oswald, Andrew. 2000.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Working
Paper 7487.
- Blixen, C. E. 1999.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in Older Adults with Osteoa”.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31, no.3. pp221-226.
- Brown, G. W. and Harris, T. 1978. *Social Origins of Depression
: The Study of Psychiatric Disorder in Women*. London
: Tavistock.
- Byrne, Barbara M. 199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ER,
PRELIS, and SIMPLIS : Basic Concept,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ahwah, NJ : Lawrence Erlbaum.
- Fornell, Claes and Larcker, Davi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 February. pp39-50.
- Frey, Bruno S. and Stutzer, Alois. 2000.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The Economic Journal* vol.110.
pp918-938.
- Friedman, John. 1987. *Planning in the Public Domain : From Knowledge
to Acti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illingham, R. and Reece, W. S. 1979. “A New Approach to
Quality of Life Measurement”, *Urban Studies* vol.35, no.12.
pp2241-2251.
- Graham, Carol and Pettinato, Stefano. 2001. “Happiness, Markets,
and Democracy: Latin America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2. pp237-268.
- Hair, J. F. and Anderson, R. E. and Tatham, R. L. and Black.
W. C.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NJ : Prentive-Hall, Inc.
- Happy Planet Index. (www.happyplanetindex.org). [2011.3.15].
- Helliwell, John. F. 2001. *Social Capital, the Economy and Well-Being.
in Keith Banting, Andrew Sharpe, France St-Hilaire(eds.).
The Review of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Montreal
: The Institute for Research on Public Policy.
- Johnson, J. P. 1982. “The Quality of Life of Hemodialysis and
Transplant Patients”. *Kidney International* vol.22. pp286-291.
- Lee, R. M. and Draper, M. and Lee, S. 2001. “Social Connectedness,
Dysfunctional Interpersonal Behavior, and Psychological
Distress: Testing a Mediator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8. pp310-318.
- 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Paris : OECD.
- Oswald, A. J. 1997.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Economic Journal vol.107. pp1815-1837.
- Putnam, Ronald. 2000. *Bowling Alone :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Y : Simon Schuster.
- Raykov, T. 1998. “On the Use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in Personality Researc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24. pp291-293.
- Rice, K. G. and Leever, B. A. and Christopher, J. and Porter, J. D. 2006. "Perfectionism, Stress and Social (Dis) Connection: A Short-Time Study of Hopelessness, Depression,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Honors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3. pp524-534.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3. *WHOQOL Study Protocol*. WHO(MNH/PSE/93.9). Geneva.
- Young, K. J. and Longman, A. J. 1983. "Quality of Life and Perosn with Melanoma : A Pilot Study". *Cancer Nursing* vol.6. pp219-225.

-
- 논문 접수일: 2011. 8.22
 - 심사 시작일: 2011.10.12
 - 심사 완료일: 2011.10.26

Influencing Factor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Immigrant by Government-led Land Development Projects

Keywords: Immigration, Public Land Development, Life Satisfaction

Since 1960's until now, there are numerous cases of unwanted immigration because of large-scale land development projects led by governments in Korea. Although land developers have granted compensations for indemnity and supplementary living allowance to them, immigrants are still suffering from the radical changes of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From this perspective,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how seriously the life satisfaction of their life has been negatively influenced by forced immigration using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hrough this analysis, we reached a conclusion that 'economic factors of immigran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rather than 'physical facilities of house' and 'social connectedness'. Thus, the current compensation system for forced immigrants needs to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of restoring the quality of life, which already is practiced in some advance countries.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에 의해 이주된 주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세종시 개발지역 이주민을 대상으로

주제어: 공공개발사업, 이주민, 삶의 만족

6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라 수많은 주민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개발의 주체는 이들에게 대물적 보상금과 보충적으로 생활보장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뷰 결과 이주민은 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상당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SEM)과 계층분석(AHP)을 활용하여 이주민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요인, 사회적 유대감 그리고 물리적 시설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주민은 새로운 지역에서 과거와 비교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보상의 개념을 삶의 질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현행 보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